

완도전북, 코로나19에도 설 선물로 인기

완도군, 판매 동향 분석...지난해 대비 270% 증가 “김영란법 개정·방송홍보·비대면 마케팅 효과”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이 좋은 식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설 명절 선물로 완도산 전복이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난 달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설 명절 기간 전복 판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설 명절 대비 완도군이 전복 판매량은 270% 증가하고, 우체국택배를 이용한 전복 발송 건은 6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이 읍을 통한 전복 판매 금액은 지난해 설 대비 171% 증가한 1억1천1백만 원이며, 판매량은 2020년 설에는 521kg, 2021년 설에는 1,936kg으로 총 1,415kg이 증가했다.

우체국택배를 통한 전복 발송 건수는 총 29만 3662건이다.

지난해 추석에는 전복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었지만, 그보다 완도군이 전복 판매액이 41% 늘었고, 우체국택배 전복 발송 건은 73%가 늘었다.

한편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복 등 수산물 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시청률이 높은 TV 교양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수산물물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옴즈전남투브’를 통한 전복 판매와 온라인 쇼핑몰인 ‘완도군이수’와 ‘우체국 쇼핑몰’ 내 명절기획관을 개설해 건당 5천원 할인 쿠폰을 지원하고, 5~10% 할인 행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귀성과 역귀성을 자제하는 ‘모두 멈춤’ 운동을 전개하면서 항우회에 가족, 친지들을 위한 선물로 완



도 특산물을 적극 이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김영란법 개정안에 따라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된 것과 TV 방송 홍보, 온라인 할인 판매 등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한 점이 전복 판매 증가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해마다 4~5월 전복 홍수 출하로 인해 가격 하락과 판매 부진이 반복돼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해남군, 풍년농사 밑거름 고품질 상토 공급 직파 등 제외 전제 비 재배면적 18000ha 다음달 말까지 공급 완료

해남군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못자리 상토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 24억 3,000만원(군비 50%, 자부담 50%)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1만 8,000ha에 우량 상토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량상토는 직파 및 무논점과재배 등 못자리가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하고 전제 비 재배 면적에 공급될 예정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 조성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못자리 상토 지원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상토원 부족으로 못자리 작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농민들의 일손부족을 해결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9일 못자리용 상토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농가 대표

들의 투표를 거쳐 ㈜부농, ㈜청농, ㈜서울바이오, ㈜농경, ㈜성화, ㈜대동산업, ㈜참그로, ㈜농우바이오 등 8개 상토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각 읍면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농가대표 140여명의 투표 후 군에서 개표하는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해남군은 농가로부터 공급업체별로 일반, 친환경, 매트 상토를 각각 신청받아 3월 31일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우량 상토를 사용한 못자리 조성은 고품질 비 재배의 첫걸음으로 차질없는 공급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풍년 농사를 이루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장흥군, 관내 녹화 경관 개선에 본격 착수

‘푸른숲가꾸기팀’ 18명 구성

장흥군은 임춘을 맞아 지역 내 도시숲과 정원, 가로수 등을 정비해 아름다운 녹화 경관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에 첫 개시로 장흥군 소속의 ‘푸른숲가꾸기팀’ 인력을 활용하여 올해 새로 신축한 전남지역소방본부 도로변에 산재한 개나리 정비와 덩굴류 제거에 나섰다.

푸른숲가꾸기팀은 숲 가꾸기 패트롤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으로 총 18명의 수목관리 전문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에서 발생한 수목 부산물을 수집해 톱밥 생산 및 재활용하고, 임업 기계 장비를 활용하여 생활

권 산림 피해지 또는 도로변의 덩굴류를 제거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장흥군 소속 인력단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푸른숲가꾸기팀이 전남지역소방본부 도로변의 덩굴류 제거 작업을 실시하여 개나리, 철쭉 등의 생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며 “녹화 경관 개선을 점차 확대 시행하여 장흥군의 아름다운 가로 경관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흥군은 올해 약 9억 원의 예산으로 푸른숲가꾸기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탐진강변 등 관내에 산재한 가로수 및 가로화단을 관리하여 군민들은 물론 방문객들에게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화 경관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흥=김도영기자

“올 봄에는 강진 삼십리 벚꽃길을 걸어 보아요”

금곡사~까치내재 정상까지 벚꽃길 산책로 개설 완료



금곡사 벚꽃길 데크 산책로 전경

강진군은 불철 대표 관광지인 금곡사 삼십리 벚꽃길에 산책로를 개설해 관광객 맞이에 들어간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방도 827호선을 따라 30년 이상 수령의 벚꽃나무가 장관을 이루는 금곡사 벚꽃길은 매년 봄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다. 그동안 강진군은 삼십리 벚꽃길 조성사업을 통해 주차장 조성 및 공원 정비 등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주변에 마련된 보행로가 없어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

다. 이에 강진군은 금곡사 광장부터 까치내재 정상까지 총연장 1.1km로

벚나무 사이를 거닐 수 있는 야자매트 구간과 강진읍을 바라보면서 거닐 수 있는 데크 구간을 조성해 관광객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코스를 마련했다.

또, 장미산장부터 까치내재 전망대까지 약 1km에 대해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올해 벚꽃이 피는 4월 초에는 하동 심리벚꽃길보다 더 아름다운 야간 벚꽃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이번 금곡사 벚꽃길 산책로 개설공사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름다운 벚꽃을 구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지친 관광객들의 마음에 힐링 여행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도시민지원센터 개소...귀농귀촌 맞춤형 지원

장흥군은 귀농귀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도시민 적극 유치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 15일 농산과 건물 3층(농업기술센터 첨단기술관 3층)에 ‘도시민지원센터’를 개소했

다고 밝혔다. 도시민지원센터에서는 귀농·귀촌에 관한 종합상담과 도시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교육 지원, 도시민 임시

체류시설(귀농체험관, 귀농인의 집) 유지관리 등을 전담하여 도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도시민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도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로 유치하고, 행복한 귀농귀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역민과 융화 부분 및 사후 관리까지 신경 써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흥군 도시민지원센터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상담 전화는 061) 860-5952~5954로 가능하다.

장흥=김도영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